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5. 15.(목) 11:00 < 5.16.(금) 조간 > 배포 2025. 5. 15.(목)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미, 중, 일 등 세계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체 회의 열려
- 인공지능(AI) 활용 무역원활화 혁신, 다자무역체제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APEC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5년 5.15(목)~16(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만에 APEC 의장국이 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이 되어 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국은 ▲1989년 APEC 출범 창립 멤버, ▲1991년 각료회의(서울) 개최, ▲2005년 정상회의(부산) 개최 → 2025년(경주) 포함 총 3회 의장 역할 수행

< 통상장관회의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5.15.(목)~16.(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5층 탐라홀

□ **(참석 대상)** APEC 회원 통상장관, 초청/옵저버기관 대표 등

- ㅇ **(초청기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PEC기업인자문위(ABAC)
- ㅇ **(옵저버)** 아세안(ASEAN), 태평양경제협력위(PECC)
- ㅇ **(관계기관)**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 APEC 사무국

□ **(논의 내용)** 2025년 APEC 주제*를 바탕으로 ①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②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③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논의

*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의 장으로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구성하였다.

먼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AI 원칙(OECD Principles on AI) 제정 등 AI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Yoshiki Takeuchi)이 발제하였다.

두 번째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의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본 세션에서는 WTO 사무총장(Ngozi Okonjo-Iweala)이 발제자로서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5.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은 그간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해왔다. 1989년 각료회의(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로 출범하여,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통상장관회의에서 도출된 협력 방안이 이러한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

** (교역 양적 성장)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 → 2021년 5.3%로 인하, 동 기간 역내 상품 무역 9배 이상 증가 / (교역 질적 성장)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으며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그 어느때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며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본 회의 논의 결과가 세계에 큰 울림을 줄 것이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오늘 통상장관회의가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전례없는 글로벌 통상 여건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일보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성과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정상회의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의 등 민간과 협력하여 정상회의 주간 APEC 경제인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글로벌 경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CEO Summit, ▲정상-ABAC(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간 대화, ▲수출·투자 연계 행사 (수출 붐업코리아 Week,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딥테크 스타트업 포럼 등)

【붙 임】 2025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요
개회식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담당 부서	다자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세나 (044-203-5930)
		담당자	팀 장	지민정 (044-203-5901)
			사무관	홍석민 (044-203-5936)
	세계무역기기구과	책임자	과 장	김파라 (044-203-5920)
		담당자	사무관	전기성 (044-203-59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2025년 APEC 통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5.15.(목)~16.(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5층 탐라홀**

□ **(참석 대상) APEC 회원 통상장관, 초청/옵저버 기관 대표** 등

○ **(초청기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PEC기업인자문위(ABAC)

○ **(옵저버)** 아세안(ASEAN), 태평양경제협력위(PECC)

○ **(관계기관)** 고위관리회의(SOM) 의장, APEC 사무국

□ **(주요 내용)** 2025년 APEC 주제*를 바탕으로 ①**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②**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③**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논의

*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

< 세부 행사 계획 >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5.15.(목)	13:30-14:00	**개회식**	
		-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 공개**
	14:00-15:40	**❶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 OECD 사무차장 발표	Yoshiki Takeuchi
	15:40-16:00	**Coffee Break**	
	16:00-17:40	**❷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 WTO 사무총장 발표	Ngozi Okonjo-Iweala
	18:00-20:00	**만 찬**	
5.16.(금)	10:00-11:40	**❸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11:40-12:00	**폐회식**	
	12:30-14:00	**AI Innovation 오찬**	민간 AI 혁신 사례 발표
	14:30-15:10	**기자단 브리핑**	**통상교섭본부장 / 공개**

붙임 2 **개회식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 인사 발언 〉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APEC 회원 경제체 장관 여러분과 대표단,
APEC 사무국장, SOM Chair,
게스트 기관으로 오신 WTO, OECD, ABAC와
옵저버로 참여해주신 ASEAN, PECC
모두 대단히 환영합니다.

2025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곳 제주 섬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는
섬 특유의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지닌
한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한국에는 발달된 ICT와 K-컬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 최근 글로벌 통상 여건 및 금년도 APEC 의미 〉

한국은 1989년 APEC 출범에 참여한 창립 회원이고
1991년 서울에서 각료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의장국으로서 이 곳 제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다시 이 곳 제주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장인 저의 어깨는 매우 무겁습니다.

2025년 오늘,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긴밀해지고 있지만
세계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WTO, IMF 등 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 상품 무역이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그 어느 때 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는
APEC 21명의 통상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다자논의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 APEC의 중요성 및 통상장관회의 성과 〉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되었고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할 정도로
오늘날의 APEC은 세계 최대의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APEC은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추고,
역내 상품 무역을 9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교역의 질적인 성장의 결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APEC은 협력 성과의 개방성,
유연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인 합의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낳는 정책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바쁜 기업인들이 비자 없이 역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제도’ 의 도입은
인적 연결성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기도 합니다.

〈 통상장관회의 아젠다 〉

이와 같이, 지난 30여 년간 APEC의 성장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바로 통상장관회의입니다.
금년 APEC의 주제는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입니다.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제와 연계하여,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과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입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은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상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APEC 역내 혁신적인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은 통관 절차의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국제기구 최초로 AI 원칙을 채택한
OECD 사무차장 MR. Yoshiki Takeuchi의 발표로 세션의 문을 열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기회요인도 있겠지만 위험요인도 상존합니다.
기회요인의 활용과 위험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APEC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입니다.
그동안 WTO를 포함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논의는
통상장관회의의 꾸준한 주제였습니다.

우선, WTO 사무총장 DR. Ngozi Okonjo-Iweala이 화두를 던질 겁니다.
최근 WTO의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가운데
APEC 통상 수장들의 통찰력과 고견이 기대됩니다.

마지막 세션은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세계는
국가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나아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할 때
공급망 관리의 개념은 효율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확장해야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이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한 무역과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각국의 정책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APEC 공동의 이해를 넓히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APEC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논의의 결과가 세계 경제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공동체 정신을 생활 철학으로 삼아왔습니다.
오늘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의 평화롭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삶의 기운과 영감을 받아,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발판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값진 성과를 낳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개회식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영문 버전)**

〈 인사 말씀 〉

Good morning.

Esteemed excellencies of APEC Ministers and distinguished delegations,
APEC Secretariat Executive Director and SOM Chair,
members from guest organization of the WTO, OECD and ABAC
as well as members from observe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SEAN and PECC,
I warmly welcome you all to Korea.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made the journey all the way to Jeju Island for this year's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RT) Meeting.

As a UNESCO Natural World Heritage Site
Jeju Island is the most beautiful island in Korea,
celebrated for its vibrant island culture and natural surroundings.

I am very pleased to share this beautiful heritage with our guests who are no doubt already aware of Korea's advanced ICT and K-culture.

‹ 최근 글로벌 통상 여건 및 금년도 APEC 의미 ›

As a founding member of APEC in 1989,
Korea began by hosting ministerial meeting in 1991 in Seoul, and hosted MRT meeting in this very island in 2005 as the Chair economy.

Two decades after the last MRT meeting in Jeju Island,
I am honored to serve as the Chair of this year's gathering.
However, I also feel a sense of weight on my shoulders.

Today, the global environment surrounding APEC economies faces an array of challenges.
As cross border trade and interconnected supply chains continue to expand,
growing uncertainties are placing a strain on the global economy and trade landscap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TO and IMF have downgraded their projections for global trade and economic growth.

Given this challenging global trade environment,
the role of APEC is more crucial than ever.

Today's meeting bears great importance as a forum for the heads of trade from 21 APEC economies collaborate and share their insights.
This is the reason why the world is paying keen attention to this year's MRT meeting.

〈 APEC의 중요성 및 통상장관회의 성과 〉

APEC began in 1989 as a "Ministerial Meeting" and was elevated to a "Economic Leader's Meeting" in 1993.
Today, APEC has grown to become the world's largest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y,
encompassing around 37% of the global population, 61% of global GDP, and 49% of global trade in goods.

APEC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xpanding trade.
Specifically, average regional tariffs were reduced from 17% in 1989 to 5.3% in 2021, while trade in goods increased across the region by more than 9-fold.

Beyond quantitative growth, APEC has also achieved qualitative growth that includes streamlined customs procedures and enhanced supply chain connectivity.

Above all, APEC has functioned as a policy incubator that generates innovative ideas through its open approach to cooperation as well as voluntary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flexible discussions.

One notable outcome of improved people-to-people ties is the "APEC Business Travel Card" program, which enables business people to travel freely across the region without visas.

〈 통상장관회의 아젠다 〉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 was none other than the MRT meeting that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PEC.

As you are aware, this year's APEC theme is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

Reflecting on this theme, the MRT meeting selected topics that will facilitate discussions on how we can work together to restore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hile addressing current global trade challenges and emerging issue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first session theme is "AI Innovation for Trade Facilitation."
Amidst the rapid transition toward the digital economy, AI is being adopted across a wide range of sectors.

In particular, the use of AI in trad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novative trade facilitation in the region. while enhancing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tability of customs procedures.

We will begin this session with a keynote speech from OECD Deputy Secretary-General, Mr. Yoshiki Takeuchi.
The OECD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adopt AI principle in 2019.

Although the development of AI presents many opportunities, it also poses a number of risks. I therefore look forward to discussions on how APEC economies can collaborate to harness the benefits while proactively mitigating the risks.

The second session theme is "Connectivity through Multilateral Trading System."
Discussions o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including the WTO, have long been a focus of the MRT meeting.

WTO Director-General, Dr. Ngozi Okonjo-Iweala will open this session by introducing up the topic for discussion.
Given the varying opinions on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WTO, I look forward to hearing insights and diverse views.

The third and final session theme is “Prosperity through Sustainable Trade.”
Following the supply chain crisis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global economy has seen confidence in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s restor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ike-minded countri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supply chain management must move beyond efficiency and toward long-term sustainability.
Only by building sustainable supply chains can we ensure lasting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this vein, I hope that today’s discussions will enhance our shared understanding regarding stabl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nd facilitate exchanges of ideas on future collaboration.

〈 마무리 말씀 〉

Given the many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very existence and role of APEC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Indeed, I believe the outcomes of our discussions will resonate the world over.

Jeju Island has long embodied the values of community in its way of life.
Under this spirit, I hope today's MRT meeting will lay a solid foundation for dialogue and collaboration to overcom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as well as uncertainties that we encounter.

Building on the progress of today's meetings, I look forward to producing meaningful outcomes at the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2025.

Thank you.